

전주시내 · 마을버스와 함께한 추억 공유

‘시내 · 마을버스 체험수기 공모전’ 10~80대 다양한 세대 시민 201명 참여... 수상작 7편 선정

전주시가 ‘시내 · 마을버스 체험수기 공모전’을 통해 시민들과 대중교통과 함께한 추억을 공유했다. 시는 시민들이 직접 경험한 시내(마을)버스 이용 체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공유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실시한 ‘시내 · 마을버스기 공모전’에 10대부터 80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세대의 시민 201명이 참여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특히 공모전에 참여한 시민들은 △버스를 통해 새로운 인연을 만난 이야기 △어린 노인의 시내버스와 얽힌 아버지와 추억 이야기 △부모와 함께하는 아이의 시내버스 여행기 등 일상 속 시내버스 이용 경험과 감동적인 사연들을 소개해 심사위원들의 찬사를 이끌어냈다. 시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 7개의 작품을 수상작으로 결정했다. 영예의 최우수상은 정은아 씨의 ‘내가 길을 잘 아는 이유’가 선정됐으며, 이상진 씨의 ‘마을버스 인기가 참 좋구나’와 양봉만 씨의 ‘내 삶과 함께하는 전주 시내버스’ 등 2편이 우수상을 받았다. 장려상에는 △김원자 씨의 ‘날마다 810번 버스를 기다립니다’ △정수민 씨의 ‘소울이 반짝이는 눈으로 본 첫 버스 여행’ △김현진 씨의 ‘열두 번째 정류장은 선물이었다’ △박지숙 씨의 ‘전주 56번 버스에서 마주한 따뜻한 순간들’ 등 4편이 선정됐다. 모든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함께 최우수상 50만 원, 우수상 30만 원, 장려상 20만 원 상당의 전주사랑상품권이 각각 부상으로 지급된다. 시는 이번 공모전에 응모한 작품 중 우수 작품에 대해서는 작품집으로 제작 후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교육 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시내 · 마을버스 더욱 친근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홍보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는 운수종사자들이 시민들의 다양한 시간과 경험을 이해하고 더욱 친절하고 공감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주시가 ‘시내 · 마을버스 체험수기 공모전’을 통해 시민들과 대중교통과 함께한 추억을 공유했다.

로 제작 후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교육 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시내 · 마을버스 더욱 친근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홍보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는 운수종사자들이 시민들의 다양한 시간과 경험을 이해하고 더욱 친절하고 공감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규문 전주시 대중교통국장은 “이번 공모전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대중교통의 중요성을 알리는 뜻깊은 기회가 됐다”면서 “앞으로도 시민들과 소통하며 시민들이 시내버스를 더욱 편리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대중교통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심규문 전주시 대중교통국장은 “이번 공모전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대중교통의 중요성을 알리는 뜻깊은 기회가 됐다”면서 “앞으로도 시민들과 소통하며 시민들이 시내버스를 더욱 편리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대중교통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편성 기준 상향 촉구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건의안 채택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편성 기준 상향을 촉구했다. <관련기사 9면> 전주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24일 부안군의회에서 제287차 월례회를 열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편성 기준 상향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진안군의회 동창욱 의장이 제안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편성 기준 상향 촉구 건의안은 지역아동센터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을 해달라는 내용이 골자다. 건의안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시설이지만 종사자의 인건비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제시된 편성 기준만큼만 국비로 지

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 외는 시 · 도별 인건비 지급 체계에 따라 상이하게 지급되고 있어 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협의회는 “아동복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의 복지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며 조속한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남관우 회장은 “시 · 군의회 의장과 뜻을 모은 현안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힘을 모아 나가겠다”며 “2025년 새해에도 도민의 행복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소통과 협력의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국회의원장표, 국무총리실, 각 정부 부처와 정당 대표, 한국전력공사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김옥기 기자



안심 비상벨과 칸막이 안심 기립막이 설치된 완산체련공원 공중화장실

전주시설공단, 체육시설 야외 화장실에 ‘안심 설비’ 설치

전주시설공단(이사장 이연상)이 체육시설 야외 화장실에 ‘안심 설비’를 설치했다. 체육시설 이용객뿐 아니라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체육시설 야외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 지난 24일 공단에 따르면 완산생활체육공원과 덕진체련공원 등 5개 체육공원 19개 야외 화장실에 비상벨과 칸막이 안심 기립막이 설치됐다. 안심벨은 비상시 버튼을 누르면 공단 직원이 상주하는 각 체육시설 사무실에 벨이 울리는 구조로, 유사시 공단 직원이 현장에 출동해 상황을 관리할 수 있다. 또 칸막이 안심 기립막은 화장실 칸막이 밑 부분을 막아 옆 칸이나 외부에서 스마트폰 또는 카메라로 칸막이 내부를 불법으로 촬영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치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

로 공중화장실 내 비상벨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이는 신규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비록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시민들이 안심하고 야외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기존 화장실에 안심 시설을 설치한 것이다. 체육공원은 공원이라는 특성상 체육시설 이용객뿐 아니라 인근 주민 등 일반 시민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다. 공단은 또 자체 보유 전문 장비를 활용해 공중화장실 내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연상 이사장은 “시민 누구나 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야외 화장실 안심 설비 설치도 그 노력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시민이 만족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기 위해 관리와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안전하고 쾌적한 중증장애인 보금자리 마련

금선백련마을,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신축 · 이전 준공식 개최

거동이 불편한 전주지역 중증장애인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새로운 보금자리를 갖게 됐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금선백련마을은 지난 24일 완산구 용북동 독배마을에 신축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의 준공식을 가졌다. 이번엔 신축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은 기존 완산구 평화동에서 완산구 용북동 독배마을로 이전한 것이 특징으로, 863.22㎡의 연면적에 2층 규모로 건설됐다. 신축 건물은 30명의 중증장애인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앞으로 장애인들의 자립적 생활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금선백련마을은 당초 아파트 주변에 위치한 대다 건물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금선백련마을은 지난 24일 완산구 용북동 독배마을에 신축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의 준공식을 가졌다.

적 생활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금선백련마을은 당초 아파트 주변에 위치한 대다 건물

화로 안전에 취약했다. 또, 거주 공간이 협소해 중증장애인들이 생활하기에 불편함을 초래했다. 이에 금선백련마을은 지난 2021년부터 전주시의 협조를 받아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에 신축했으며, 올해 모든 공사를 완료했다. 금선백련마을 관계자는 “이번 신축 건물의 준공을 통해 중증장애인들에게 안전한 생활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면서 “도움을 주신 지역사회의 많은 관계자분께 감사드립니다”고 소감을 밝혔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축사를 통해 “이전 · 신축을 통해 중증장애인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금자리를 갖게 돼 기쁘다”면서 “어려움과 불편을 감수하며 살아가는 장애인들에게 편견보다는 사랑을 실천해 이들이 지역사회

/김옥기 기자

전북의 역사 · 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렸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 · 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전북의 구심점이자 전인자였다.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제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증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공각



내아

전주매일 캠페인